

<사각형 프리즘> 영화 읽기 3종 교재 개발 원고

(*모든 저작권은 <사각형 프리즘>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왜 영화 교육을 해야 할까요?

영화는 사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를 재현한 매체로서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각 세대의 삶이 드러나 있는 인간 삶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문자세대와 영상세대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가능해져서 두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또한 영화는 사라져 가는 낭만과 꿈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재현해 내며 가공의 사건, 이미지를 통해 미적, 경험적인 대리만족을 주기도 하여 내러티브 사피엔스(narrative sapience)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는 드러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숨겨진 이면까지 볼 수 있으므로 학생의 안목, 창의성을 높이기도 적당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복잡한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영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영화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영화교육의 방향은 영화읽기로-

학교에서 영화 교육은 영화 리터러시(film literacy) 즉 영화읽기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영화 읽기 무엇일까? 영화읽기는 말 그대로 영화를 읽는 능력으로 영화를 제대로 보는 것을 뜻한다. 영화는 인간의 시각을 통해 이해되는 매체로 영화를 제대로 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영화가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영화읽기는 영화가 갖는 의미, 영화가 주는 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새로운 영화제작 및 비평의 문화 모색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운 날 먹은 아이스크림은 더위를 식혀주지만, 아이스크림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사람에게 좋은 음식으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영화 읽기는 영화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화의 특징, 영화가 주는 결과, 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관점이란 미디어학적 관점, 인문 철학적, 사회문화적, 심리 과학적, 교육학적 관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 읽기는 영화를 낱알이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비평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읽기는 영화를 수업과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방법과 영화 그 자체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영화를 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후자는 영화 교육 그 자체를 읽는 행위가 목적인 방법이다. 전자와 후자의 방법

모두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으로 하든, 후자의 방법으로 하든 영화읽기를 할 때 고민되는 것이 영화읽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영화읽기는 영화를 보는 것과 듣는 것(시각, 청각)을 통해 사물과 인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읽기는 우선 영화를 텍스트로 인정하는 것이다. 영화라는 텍스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텍스트이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텍스트가 활자화 매체라면 영화는 대사, 음향, 등장인물, 이야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이다. 그러기에 영화는 문자매체와는 달리 사물이나 인간 그리고 세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용이한 매체이다. 즉 영화는 드러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 드러난 인물의 성격뿐만 아니라 숨겨진 면까지 볼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

영화읽기는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 준다. 인간의 삶은 이야기로 구성되며 이야기로 전달되며, 이야기로 남는다. 영화 한편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로 전달한다. 영화 속 이야기는 형태는 다양하다. 춤으로 그림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그리고 동작과 표정으로 화려하게도 혹은 초라하게도 나타난다. 그리고 영화한편을 볼 때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한번 살아 봄직한 그런 삶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화읽기는 영화를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읽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에게 있어 영화는 일상적이면서 일상을 넘어서는 경험의 공간이다. 부모님과 같이 가는 영화관, 친구들과 함께 보는 영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관람하는 영화는 영화 자체, 영화를 관람하는 그 순간의 경험,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다양한 정서가 스쳐지는 경험의 공간이다. 영화 공간은 영화를 관람하기 이전의 일상적 경험→영화를 관람하는 경험→영화를 관람한 이후 경험 등이 교차한다. 영화 공간은 일상적이 되었지만 단절될 수 없는 연속적인 공간이자 시간이다. 영화 경험을 의미로 연결하면서 영화읽기를 하려면 다음의 방향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학생들이 감각의 발달 수준을 자각하고 편향되거나 왜곡된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화읽기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영화는 학생들의 시각, 청각 등을 자극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감각만 발달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촉발되는 다양한 감각을 자각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각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교사가 세심한 노력을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촉발된 감각을 내면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도덕적 성찰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영화 읽기를 통해 감각 수업을 할 경우 저학년은 구체적인 이미

지로 구성된 5-10분 정도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효과적이다. 중학년은 주제와 스토리가 복잡한 영화를 선정하는 것도 좋다. 영화의 스토리나 주제, 등장인물 등에 반응하는 자신의 감각과 정서적 반응을 자각하는 수업을 하면 좋다. 고학년은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스토리가 담긴 영화를 선정해서 읽기 수업을 하는 것도 좋다.

둘째, 영화와 ‘나’와의 거리를 자각할 수 있는 수업을 한다. 미디어 세대인 학생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적 표현과 관심이 높다. 이럴 경우 나와 나, 나와 타자 사이의 거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세계의 관계를 타자의 관점, 참여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인식하기 힘들다. 영화를 관람할 때, ‘관람하면서 반응하는 나’와 ‘관람하면서 반응하는 나를 관찰하는 나’를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상이 중심이 ‘나’이지만 이 ‘나’는 끊임없이 대상과 사물, 사람들과 소통하며, 성찰하면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읽기 교육 및 수업을 한다.

셋째, 학생들 스스로 영화의 세계가 가상의 세계 (시뮬라크르, simulacre)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 수업을 한다. 물론 스크린 세대에게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초현실 세계이지만, 학생들이 현실 세계가 아닌 이미지로 형성된 가공의 가상 세계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의 경우 영화의 세계가 가상세계라는 인식의 경계가 모호하다.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본뜬 인형이나 모형과 이야기를 하고,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자신이 그 인물이 된 것 같은 행동을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모방 행동은 겉으로는 청소년기와 유사하지만 인식의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 청소년들은 그것이 가상세계임을 인식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이들이 발달적 특성상 가상세계라는 것을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하였듯이 이들이 감각적이고, 상상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세계가 가상세계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학생들 스스로 현실 인식의 근거가 되는 ‘자기 감각’ 발달이 둔화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신체감각, 오감, 인간에 대한 감각, 아름다움에 관한 감각, 영혼에 대한 감각 등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자아정체성은 물론 자기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다. 자기 감각이 있어야, 삶에 관한 내·외적 존재적 물음을 던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의식과 무의식의 흔적을 남긴다. 경험의 흔적은 그 이후 경험하는 사건들에 관한 선행 경험이 된다. 영화 경험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화 감각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감각과 정서, 인식과 정서를 통합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화를 활용한 읽기 교육은 참여적 자아(participant self)와 관찰적 자아(observing self)를 발달시켜서 참여적 관찰자(participant observer)가 될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을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영화 환경 및 영화가 생산되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힘(empowerment)을 길러주는 영화 읽기 교육을 한다. 학생들의 내적인 힘은 창조적이고 건강한 영화 문화를 만들어 갈 힘이다.

이외에 영화 읽기 교육은 영화제작, 영화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살아감은 자신에 대한 자각, 자각을 통한 한계 설정, 자각을 의미와 가치로 구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사자와 같은 용감함도 없고, 매처럼 높이 날 수도 없고 말처럼 달릴 수도 없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영화를 포함한 대중매체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해서 사자처럼 용기가 있을 수 있고, 매처럼 날 수 있고, 말처럼 달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착각하게 하기도 한다. 인간임은 한계를 자각하고 그 한계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학생들을 위한 영화 읽기 교육은 감각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감각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자각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영화 읽기 교육을 하는데 정답이 아닌 물음만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화 읽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나’와 관람하는 ‘나’, ‘나’와 현실의 세계와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고 고민을 시작하는 것의 출발이어야 한다. 우리는 왜 영화를 읽어야 하고, 읽는다고 하는 행위는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지속해서 묻는 것이어야 한다. 해답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찾아가는 경주의 과정인 것이다(사각형프리즈, 2018.: 189~194재인용).

교과 및 창의적 재량 시간 등 영화 읽기를 하고자 할 때, 유의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영화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영화 환경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으며, 영화 환경에 따른 어린이들 발달, 문화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화 교육이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교육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목적은 학생들이 좋은 삶, 자주적인 삶, 함께 하는 삶, 인류적 삶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삶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기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관심, 욕구, 흥미, 인지, 정서, 행동의 발달 경향, 건강이외에 교육을 지원하는 가정, 지역사회 환경 등의 상태를 교육의 근거에 반영해야 하고, 학생들 스스로 삶의 자유로운 주체임을 자각하는데 교육적

관심을 갖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삶의 자유로운 주체임을 자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호흡하는 숨 쉬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감각하고, 느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나’와 나와 연관된 모든 타자들과 삶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진정성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화 교육 역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즉 영화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을 주체의 관점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하며, 영화 경험을 의미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사실 영화는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매체이다. 영화의 세계는 시각적 촉각을 자극하는 이미지의 세계이고, 상상의 세계이고, 유의미한 타자들이 살고 있는 가상 놀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과 및 잠재적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영화교육을 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교육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화 읽기 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활용하며, 어린이들의 발달상황, 문화상황,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간혹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주의 관점이 지나쳐서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가르치는 교사들의 주관적인 개념만을 주입하는 영화읽기 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유리된 추상적인 개념 수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은 이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수업을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영화 교육의 수준과 단계는 다층적이어야 하고, 복잡한 스펙트럼의 층위를 갖고 교육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영화 경험이 다양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영화 경험을 인정하고,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하려면 영화문법, 영화문화의 특징 및 관련 법적인 규제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어야 한다.

셋째, 학교 영화읽기 교육은 학생들 각자 자신의 영화 경험을 재구성하고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화읽기 수업은 영화 언어에 대한 이해, 가치 있는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영화에 관한 집단 및 문화적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영화를 선택해서 관람하고, 제작하고 표현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문화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가 되는 힘(empowering)을 길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영화의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어야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해한 영상 문화가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발달할 수 있다.

넷째, 영화 읽기 교육의 진행은 사전 교육→ 영상물 관람→ 사후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영화는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이다. 가상의 세계에 몰

입하는 경험을 성찰하는 수업을 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학교는 물론 부모들이 영화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사전 교육, 영화 관람, 사후 교육의 형태로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 사전 교육은 관람할 영화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는 교육이다. 관람하게 될 영화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이외에 정서적, 행동적인 영향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다. 학교에서 사전 교육을 할 경우 별도의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1차시의 형태로 진행해도 좋다. 관람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에서 고찰하였듯이 학생들이 영화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에서 함께 관람하는 것이 좋다. 영화를 관람하는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도 사후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 사후 교육 영화를 관람하고, 이루어지는 교육이 사후 교육이다. 사후 교육은 학생들이 영화에 관한 지각, 인식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관람한 영화가 재미가 있었는지? 등과 같은 단편적인 질문보다는 영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질문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화 읽기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에 민감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영화 영향력의 지속성은 이들이 느낀 정서적 반응 및 태도에 있다. 정서적 반응은 학생들의 무의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정서적 반응은 현재 삶의 동기를 촉발하고, 이후 인식 경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 혹은 단체에서 영화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정서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존재적 가치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영화 읽기 교육은 표현 활동을 강조하고 격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저런 영상을 보면 안 된다’는 금지의 형태가 아닌 ‘이런 저런 영상을 보면 좋다’는 긍정적인 차원의 언어 표현을 통한 교육을 해야 하고, 학생들의 표현적 결과’(expressive outcomes)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현적 결과는 개인의 경험이나 목적에 알맞은 풍부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가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영화 읽기 교육은 영화 제작 교육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미식외, 2018: 52~55재인용).

참고 문헌

- 사각형프리즘 (2018), 버팔로라이더 : 영화읽기 수업을 만든 방법, 서울 : 북랩
- 이미식외 (2009),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실제, 서울 : 서현사.
- 이미식외(2018), 올바른 영상물 이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영상물등급위원회 보고서

<롤라 Lola On The Pea, 2014> 영화 읽기 수업 만들기

1. 영화 소개

- * 감독: 토마스 하이네만
- * 장르: 가족영화
- * 국적: 독일
- * 상영시간: 90분

* 주요 등장인물

롤라 Lola 엄마와 함께 완두콩 배 위에 사는 아이.

로레타 라흐만 Loretta Lachmann 롤라의 엄마.

쿠르트 Kurt 롤라 엄마의 남자친구. 의사.

레빈 Rebin 롤라의 친구. 불법이민자.

바켈트 Barkelt 케빈의 아빠. 수상스포츠클럽 회장.

졸름젠 Solmssen 작은 식당 주인. 케이프타운에서 살아남은 선장이라고 함.

* 줄거리

롤라의 아빠는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졌다. 롤라는 아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아빠가 목에 해준 키스 자국을 간직한 채 자신만의 세계를 살고 있다.

그러다 두 명의 불청객이 롤라에게 찾아온다. 한 명은 롤라의 같은 반 친구인 불법이민자 레빈이고, 다른 한 명은 엄마의 남자친구인 의사 쿠르트 아저씨다. 아빠와 엄마만 있으면 충분했던 롤라에게 레빈은 처음으로 신경 쓰이는 친구이다. 그리고 쿠르트 아저씨는 아빠가 돌아올 수 있는데 엄마의 옆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 같다. 레빈과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쿠르트 아저씨는 엄마에게서 떼어놓고 싶지만 계속 엮이게 된다.

롤라의 엄마가 “모든 게 늘 똑같지는 않아.”라고 말한 것처럼 불청객 두 명은 롤라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롤라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

2. 배경지식: 상징으로 영화 읽기

1) 배 - 균형의 상징

배는 물 위에 떠 있다.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물결에 따라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다. 롤라 가족이 살고 있는 완두콩 배는 영화에서 균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롤라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물결이 계속 밀려든다. 호수 주인 바켈트는 완두콩 배를 쫓아내려고 경찰을 부르고 항의를 하고 경고판을 세우며 롤라 가족을 위협한다. 롤라는 떠나간 아빠와 엄마의 남자친구 쿠르트 사이에서 흔들리고 롤라 엄마 로레타 라흐만은 남자친구 쿠르트와 아직 쿠르트를 받아들이기 힘겨워하는 롤라 사이에서 요동친다. 작은 물결에도 흔들리며 균형을 잡아가는 완두콩 배처럼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평화를 만든다.

2) 도망, 숨기 - 관계의 균형 상실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도망치고 숨는 장면은 관계의 균형을 상실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영화는 롤라가 친구들에게 쫓기며 마을 골목을 뛰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완두콩 배에서 살아가는 자기 가족을 놀리는 바켈트의 아들 케빈 얼굴에 케이크를 문지르고 도망간다. 그 뒤로 케빈은 롤라와 레빈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결국 레빈이 불법체류자임을 밝혀 레빈 가족을 궁지로 몰아간다. 롤라는 엄마가 남자친구 쿠르트와 사랑이 깊어지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물에 뛰어들 것처럼 자기 옷을 물에 던지고 엄마와 쿠르트 몰래 배에 숨는다. 이 사건으로 엄마와 쿠르트는 관계를 접는다. 레빈은 이모 결혼식에 롤라를 초대했다가 자기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드러날까 걱정한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롤라와 관계를 끊고 학교에 나가지도 않는다. 롤라와 레빈처럼 영화 속 등장인물이 도망치고 숨을 때마다 사건은 복잡해지고 출구는 멀어져간다.

3) 합주와 축제 - 제도적 구조적 안정

롤라 생일을 축하하러 레빈 가족이 완두콩 배로 찾아왔다.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 사람과 악기가 섞여 각 악기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연주에 맞추어 적대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춘다.

터키 전통악기와 오케스트라 악기의 합주가 만드는 축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안정을 표현하는 은유이다. 건강한 관계는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진다. 영원히 강한 사람도 없고 늘 소외만 당하는 사람도 없다. 영화 속 등장인물 중에서 자신의 힘으로 안락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춤추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3. 수업안

단 원 (제재)	도덕, 사회 - 평화와 관련한 교육
학습 주제	평화의 개념을 균형을 통해 체험한다.
학습 목표	평화의 개념을 몸으로 체험하고 소감을 나눌 수 있다.
관련 내용	창의적체험활동 - 유엔 세계평화의 날 계기교육 도덕, 사회 - 평화
수업 의도	<p>1. 방향</p> <p>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평화 개념을 인습적으로 학습한 상태이다. 달리기 예 비유하자면 본능적으로 달리를 즐기하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걷도록 학습하는 것과 같이 평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학습한 개념이다. 자신의 몸과 영혼의 자각을 통한 자기 호흡을 조절하면서 평화를 학습한 것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서 평화를 학습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한 평화 개념을 재개념화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p> <p>첫째, 평화교육의 시작은 각 개인이 자신의 몸, 마음, 영혼의 균형을 조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p> <p>둘째,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는 관계적 존재로서 삶을 평화롭게 사는 것임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다.</p> <p>셋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p> <p>2. 방법</p> <p>[모순된 이야기]: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한다면서 공부를 강조하는 현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달리를 즐기하지만 실내에서는 걷도록 하는 규칙’,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킨다.</p> <p>[균형을 찾는 세 가지 활동]: 수업 방향에서 제시한 세 가지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인지 활동, 감각 활동으로 구성하였다.</p> <p>[학습지]의 활용: 학습지는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배부하고 안내할 때 항목을 읽어보게 한다. 활동 진행과 활동 후 소감을 나눌 때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할 수 있는 종이라고 설명한다.</p>

과정(시간)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들어가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순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한다면서 공부를 강조하는 현실 -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달리기를 즐겨하지만 실내에서는 걷기만 하는 규칙 -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평화의 개념을 몸으로 체험하고 소감을 나눌 수 있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라> 영화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과 줄거리 안내 - 학습지 안내 - 영화 관람 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활동 (140분)	관람 (90분)	• <롤라> 관람										
	소감 나누기 (20분)	• <롤라> 관람 소감 쓰고 친구들과 나누기										
	균형을 찾는 세 가지 활동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가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가지 질문’ 학습지(포스트잇)에 떠오르는 것 쓰기 - 교실 곳곳에 붙인 해당 질문 번호에 포스트잇 붙이기 -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을 읽어보기 • 밸런스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이 짝을 이루어 각각 머리 위에 책을 올린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고 한 발 들기 - 이야기를 나누며 두 명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 ‘준비-시-작’ 신호와 함께 균형 잡는 시간 재기 • 손가락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분, 느낌에 따라 손가락 개수 정하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5개</td> <td>4개</td> <td>3개</td> <td>2개</td> <td>1개</td> </tr> <tr> <td colspan="2">좋다</td> <td colspan="3">안 좋다</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사람들과 서로 손가락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기 - 손가락의 개수를 정한 이유를 서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하기 	5개	4개	3개	2개	1개	좋다		안 좋다		
5개	4개	3개	2개	1개								
좋다		안 좋다										
나오기 (5분)	• 활동 소감 나누기	• 교화적인 정리 자제										

활동지

다섯 가지 질문을 읽고 떠오르는 것을 써 봅시다.

<p>학교에서 당신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을 낱말로 써 보세요.</p>	<p>고민이 생기면 누구와 이야기 합니까? 그 사람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포스트잇> 붙이는 곳</p>	<p><포스트잇> 붙이는 곳</p>
<p>고민을 털어놓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p>	<p>고민을 털어 놓았을 때 기억에 남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써 보세요.</p>
<p><포스트잇> 붙이는 곳</p>	<p><포스트잇> 붙이는 곳</p>
<p>다른 사람이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지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p>	
<p><포스트잇> 붙이는 곳</p>	

‘균형을 찾는 세 가지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다섯 가지 질문: 다른 친구들이 쓴 것을 보고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밸런스 게임: 친구와 균형 잡기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 인사: 손가락 인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친구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극소년 리턴즈 The Wayang Kids, 2018> 영화 읽기 수업 만들기

1. 영화 소개

- * 감독: 레이몬드 탄
- * 장르: 코미디/가족
- * 국적: 싱가포르
- * 상영시간: 87분

* 주요 등장인물

- 오픈. 경극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폐증 소년.
- 바오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적극적인 정의로운 소녀.
- 자오티안. 오픈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는 오픈의 부.
- 안지.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오픈의 모.
- 바오어의 부. 바오어를 응원하는 캐나다인 아빠.
- 바오어의 모. 경극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경극을 싫어했던 엄마.
- 베이베이. 자기 중심적인 아이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고 변화하는 아이.
- 베이베이 모.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영어를 중요시하는 중국인 극성 엄마.

* 줄거리

싱가포르의 어느 초등학교에 중국인 어머니와 캐나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바오어가 전학 왔다. 바오어는 자폐증을 앓는 오픈을 만나면서 특별한 우정을 쌓아간다. 바오어는 오픈이 가진 재능을 눈치 채고 오픈의 아버지 자오티안에게 다른 부모들이 오픈에 대해 불평하더라도 오픈을 학교에 다니게 할 것을 부탁한다. 바오어는 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경극 대회에 오픈이 주연을 맡을 수 있게 돕는다. 경극을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여러 장애물을 만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오픈의 마음은 조금씩 열린다.

2. 배경지식

1) 캐릭터로 영화읽기

영화 속 인물을 이해하고, 그 인물을 둘러싼 사회를 해석하는 과정이 ‘캐릭터로 영화 읽기’이다. 영화 속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나있다. 영화를 읽으며 나를 돌아보고, 나와 타인의 차이를 느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며 새로운 삶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다. 영화를 읽어내는 과정은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의 처지를 상상하고 그 자리 곳곳에 나를 놓아보고, 내 속에서 등장인물이 가진 성격을 찾아보는 연습이다.

2) 다문화 나라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다문화는 한국의 다문화와는 조금 다르다.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오래전부터 다양한 인종집단들이 어울려 살았고 중국계 76%, 말레이계 14%, 인도계 8%를 주축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싱가포르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기에, 서로의 다름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 불과 얼마 전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쪽 모두 동일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원만한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공교육 정책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중 언어 교육이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영어와 그들 자신의 모국어를 함께 배우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공교육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다른 인종 집단의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치도록 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 시스템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공립학교에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 학급 내에 인도계, 말레이계 등 다양한 인종 학생들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들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단순한 학교 공부를 넘어서 직접 경험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3. 수업안

단 원 (제재)	창의적체험활동 - 다문화이해교육
학습 주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 대한 생각 나누기
학습 목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관련 내용	<p>창의적체험활동 - 다문화이해교육</p> <p>도덕 - 4-1-6.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p> <p>사회 : 4-2-3.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p> <p>국어 - 4-1-8.이런 제안 어때요, 4-2-2.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p>
수업 의도	<p>1. 방향</p> <p>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더불어 가는 사회’라는 가치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는 이주배경가정과 그 자녀들은 분리하고 낙인찍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이주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 뿐 아니라, 흔히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다수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배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자’들이 지닌 인식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더 나아가 다문화교육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이해보다는 문화들 간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점점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의 이해가 아니라 상이한 문화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이다. 어떻게 편견 없이 만남을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남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같은’조건 위에 각자가 살아가는 문화적 ‘다름’을 놓는 과정이다. 공감은 서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 생긴다. 같음과 다름으로 만나는 다문화 수업을 상상한다.</p> <p>2. 방법</p> <p>사전활동으로 영화를 보기 전에 싱가포르 문화, 경극소년 인물과 줄거리를 소개한다. 영화를 본 뒤에는 영화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영화 속 등장인물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 끝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며 다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본다.</p>

과정(시간)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들어가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문화 설명 <경극소년 리턴즈> 영화 소개 - 인물과 줄거리 안내 					
활동 (140분)	관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극소년 리턴즈> 관람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인물 이야기 나누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경극소년 리턴즈> 관람 소감 나누기 - 포스트잇에 간단히 적어 느낌을 나눈 뒤에 관람평을 쓴 포스트잇은 모아져 한쪽 벽에 붙인다. 	포스트잇				
	영화 속 등장인물 살펴보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카드 만들기 - 영화 속 등장인물 이름과 탐구할 내용이 적힌 카드를 나눠주고 각 카드에 그 인물에 관한 자기 생각을 쓴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style="text-align: center;">오픈 Open</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적: 싱가포르(중국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물 설명하기 (성격, 외모, 특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물에 대한 내 느낌</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카드를 활용해서 인물 사이 비슷한 점 찾아보기. 	오픈 Open	국적: 싱가포르(중국계)	인물 설명하기 (성격, 외모, 특징)	인물에 대한 내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카드 인물 관계도 붙임자료
	오픈 Open					
국적: 싱가포르(중국계)						
인물 설명하기 (성격, 외모, 특징)						
인물에 대한 내 느낌						
인물 되어보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을 소개하는 카드 만들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름: 0 0 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기 특징 쓰기 (성격, 습관, 취미, 특징)</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을 소개하는 카드를 가지고 학급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과 친구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아보기.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정리하기 	이름: 0 0 0	자기 특징 쓰기 (성격, 습관, 취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을 소개하는 카드 만들기 			
이름: 0 0 0						
자기 특징 쓰기 (성격, 습관, 취미, 특징)						
나오기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소감 나누기 	※교화적인 정리 자제				

활동지

<등장인물 카드 예시>

오픈 Open
국적: 싱가포르(중국계) 성격: 외모: 특징: 인물에 대한 내 느낌:

<자신을 소개하는 카드 예시>

※이름 쓰는 곳
성격: 습관: 취미: 특징: 기타:

<두 개의 세상 Two Worlds, 2016> 영화 읽기 수업 만들기

1. 영화 소개

- * 감독: 마치이 아다메크
- * 장르: 다큐멘터리
- * 국적: 폴란드
- * 상영시간: 50분

* 주요 등장인물

로라 Laura 청각장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아이.
 아네타 Aneta 로라의 모. 청각장애인.
 아담 Adam 로라의 부. 청각장애인.

* 줄거리

12살 로라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정상적인 청력을 가졌다. 다행히 로라의 조부모는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로라를 무사히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조부모가 돌아가신 뒤 로라는 청각장애인 부모님이 살아가는 세상과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 놓인다. 로라 부모는 로라가 자유로우면서도 바르게 자라길 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 어린 로라 역시 부모의 귀와 입이 되어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된다. 로라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들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로라가 남들과 다른 자기 처지를 낯설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고지식하다고 느끼고, 어머니의 간섭에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2. 배경지식

1) 다큐멘터리 documentary 영화

허구가 아닌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현실의 허구적인 해석 대신 현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영화. 이 영화들은 실제 사람과 공간뿐만 아니라 사건과 행동들에 관심을 갖는다. 영화에 현실을 넣으려는 행위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바꾸어야만 하고, 현실로부터 선택한 것에 형태와 형식을 부여해야만 한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감독이 기록한 현실을 어떻게 통제했는가의 관점에서 평가 받는다. 어떤 다큐멘터리는 현실의

한 측면에 대해서 관객을 특정한 시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 제작된다. (영화사전, 2004. 9. 30., propaganda)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documentaire'에서 유래한다. 그 뜻은 문헌, 자료, 기록 등이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는 모순적이다. 다큐멘터리가 허구가 아닌 실제 현실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현실의 묘사는 언제나 주관적 의도와 선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어슨은 다큐멘터리를 '실재를 창조적으로 다루는 작업(a 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은 다큐멘터리의 딜레마를 잘 설명해준다. 다큐멘터리는 필름의 사진적 존재론이 지닌 리얼리즘의 역설을 드러낸다.

빌 니콜스(Bill Nichols)에 따르면, 다큐멘터리는 크게 6가지 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시적(poetic), 설명적(expository), 참여적(participatory), 관찰적(observational), 자기 반영적(reflexive), 실천적(performative) 양식(mode)들이 존재한다(Nichols, 2001).

하지만 이러한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다큐멘터리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 관찰과 주관적 설명, 사실적 묘사와 감성적 접근, 기록적 포착과 능동적 개입의 복합적 구성물이다. 니콜스에 따르면, 오늘날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극적 양식(Theatrical Documentary)과 결합하고 있다(Cook, 2007). 드라마 구조, 사건의 재조합, 과거 사건에 대한 재규정, 자료 필름을 통한 접근, 매력적 개인, 감정적 호소, 주관적 접근 등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기록성을 뛰어넘는다. 이를테면, 에롤 모리스(Errol Morris)의 <신 블루 라인(The Thin Blue Line)>(1988)은 다큐멘터리의 자기 반영적 양식을 보여 준다. 차별적이고 의도적인 조명, 장면화, 편집을 통해 관객은 국가의 폭력과 희생양이 된 순진한 개인의 입장에 동조하게 한다. 베르너 헤어조크(Werner Herzog)의 <그리지맨(Grizzly Man)>(2005), 마이클 무어(Michael Moor)의 <볼링포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2002), <화씨 9/11>(2004), <식코(Sicko)>(2007), <자본주의: 러브스토리(Capitalism: Lovestory)>(2009) 등도 개입적이고 참여적인 다큐멘터리 미학을 보여 준다. 이 작품들은 인터뷰, 내레이션, 화자의 행동적 개입, 자료의 재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화 역사와 미학,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내 주요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1995), 워낭소리(2009),북극의 눈물(2009), 울지마 톤즈(2010), 트루맛쇼(2011), 두 개의 문(2012),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다이빙벨(2015), 땀뽕 걸즈(2017),

2) 청각장애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청각 장애의 용어적 구별은 ①일반적으로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든가 말의 판별이 어렵다든가 하는 일체의 정상이 아닌 청각상태를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라 하고 ②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듣고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난청(hard of hearing)이라 하며 ③청각장애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할 때 흔히 몇 데시벨(db : decibel) 청력손실이라고 하고 ④일상생활에서 청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농(deaf)이라고 한다.

[hearing impairment]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3. 수업안

단 원 (제재)	창의적체험활동 - 장애인의 날 계기교육
학습 주제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두 개의 세상> 영화 읽기 활동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학습 목표	다큐멘터리 영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영화에 나타나는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질문을 던지며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대한 민감성을 기른다.
관련 내용	창의적체험활동 - 장애인의 날 계기교육 도덕 - 인권, 다양성, 가정생활, 아름다움, 사회 - 가족의 의미 국어 -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글쓰기와 말하기
수업 의도	<p>1. 방향</p> <p>4월 20일은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위해 만든 장애인의 날이다. 이에 맞추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장애 이해 교육을 한다. 대부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 프로그램(대한민국 1교시)을 보고 학습지를 작성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만, 드물게는 직접 장애체험을 하거나 장애 시설을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하기도 한다.</p> <p>그러나 계기 수업이 장애의 종류를 알아보거나 장애를 극복한 미담을 나누는 데 그친다면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지식은 금세 잊어지기 마련이고, 특수한 미담을 나누는 활동은 대다수 장애인의 삶을 왜곡시키거나 일반 학생들에게 장애인도 하는 데 너희들은 못하냐는 식으로 장애인을 대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와 장애인의 삶을 다루는 계기교육의 초점은 지식이 아니라 정서적인 민감성을 높이는 데 두어야 한다. 장애를 바라보는 자기의 태도와 생각을 살펴보고, 실제 장애인의 삶을 살펴본 뒤에 장애를 다시금 성찰하는 심층적인 방식이 필요하다.</p> <p>2. 방법</p> <p>사전활동으로 영화를 보기 전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로운 이야기 또는 마인드맵과 같은 활동으로 꺼내본다. 영화 <두 개의 세상>의 인물과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고 영화 이해를 돕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징을 설명한다.</p> <p>영화를 본 뒤에는 관람 소감을 정리하고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관점에서 영화를 보기 전 자신의 생각과 영화를 본 뒤 생각을 비교해본다.</p> <p>마지막으로 영화 속 인물이나 상황,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에 답하는 활동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소크라테스의 표현처럼 ‘가르침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p>

과정(시간)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들어가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평소 생각 꺼내기: 마인드 맵 * <두 개의 세상>을 보고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하며 애와 장애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세상> 영화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과 줄거리 안내 -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인드 맵 창습지 		
활동 (100분)	관람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의 세상> 관람 		
	소감 나누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의 세상> 관람 소감 쓰고 친구들과 나누기 	•학습지	
	질문과 대답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 영화 자체에 궁금한 질문 - 장애인의 삶에 대해 궁금한 질문 • 질문에 대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목화 시킨 대표적인 질문을 개별 종이에 옮기고 학생들이 종이를 돌리거나,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답쓰기 <p>(예시) 질문 종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로라가 예전 모습과 달라졌을 때 로라 부모님은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 들었을까?</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 로라가 다시 친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는 게 원망스러웠을 것 같다. • 당황스럽고 슬플 것 같다. </td> </tr> </table>	로라가 예전 모습과 달라졌을 때 로라 부모님은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 들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 로라가 다시 친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는 게 원망스러웠을 것 같다. • 당황스럽고 슬플 것 같다.
로라가 예전 모습과 달라졌을 때 로라 부모님은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 들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 로라가 다시 친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는 게 원망스러웠을 것 같다. • 당황스럽고 슬플 것 같다. 				
나오기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소감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화적인 정리 자세 		

활동지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낱말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봅시다.



<두 개의 세상>을 본 소감을 써 봅시다.